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호 [루게 제25174호] 주제105 (2016)년 1월 31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흥순창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하여 30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
김정은동지께서는 전 국립연극단 공훈배우였다.
흥순창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21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 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금강제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현대화책의 수준에서 실현되였다고 하시면서 생산공정들이 고도로 집약되고 공장이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전방면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나라의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었다. 미국의 UPI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금강제육인종합식료공장을 다른 식료공장과는 다른 판공부에서 일군들에게 참관시키고 파리부회 확대대회를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만났는데가 부러워하는 마음을 안고 인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찾아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에서는 컷다란 성과가 이룩될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 파키스탄전국준비위원회 결성이 20일 카라치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파키스탄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자메드 안사리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발원봉부회시키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 사회주의위업과 인류사주위업에 쌓아올린 그의 거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 국회 상원 의원 아마르 지트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 결성식이 21일 바젤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이 채택되었다. 김일성동지는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백두령장이시며 걸출한 국가지도자, 천재적인 사상가로서 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잠시하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정보통신발전에서 큰 의의가 있는 첨단기술 개발

은 나라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파강한 총공격을 벌이고있는 때에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첨단기술인 광자정보통신기술을 개발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몇개 나라들만이 독점하고있는 첨단기술분야에서 우리 교원학자들이 거둔 이 성과는 당 제 7차대회를 드리는 또 하나의 자랑찬 로적적성공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보통신을 최첨단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광자정보통신기술은 광자물리학의 기묘한 특성들을 정보처리기술에 적용하여 통신에서 도형의 흔적을 탐지할뿐 아니라 원리적으로 도형이 불가능하게 하는 첨단광통신기술이다. 인터넷의 광범한 사용과 함께 오늘 세계적으로 정보의 보안과 믿음성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김일성 종합 대학에서

연구자들이 연구집단을 꾸어 정보통신을 최첨단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고리인 광자정보통신기술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설계하고 밀고나갔다.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민족자존의 정신과 세계를 압도하려는 야심만만한 배심을 가지고 최첨단사업에 전념하는 열의를 보였다. 광자물리학의 기본원리들에 대한 깊은 지식과 광학 레이저의 광자기술, 빛분할 및 빔합성기술, 초수신기에서의 신호조종기술, 양도형광소자 및 복조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누구도 이 기술을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조건에서 연구집단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 수호전선 나섰다는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한마음뜻이 되어 연구 기초조성부터 원리적인 이해를 깊이하는 데서 로의 창조적열정을 함쳐나갔다. 기본원리를 파악한 다음에는 집체적협력을 거듭하면서

자강력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간다

조진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이는 정치적의의와 전제없는 로적성공과 맞이하기 위하여는 나라가 부강해질 수 밖에 없는 가운데 강인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강의 힘과 기술로 도의 정열정신을 제각각 발휘하여 반응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였으며 이은교한수리에 대한 순수한 불생산공정을 꾸리고 그 어느 때든 지 깨끗한 물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각이한 규격의 빛반사유리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미 질높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도에술극장개건과 새로 일떠서시는 문헌소전단아형소에 보장해주어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호평을 불러일으켰다. 수입유리에 비하여 원가를 훨씬 낮출수 있는 빛반사유리 생산공정이 새로 꾸러졌으며 세 많은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원산시설에 필요한 고압전력 및 빛반사유리를 마음먹어내는 데서 원만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었으며 도자재의 힘으로 건물들의 문화성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높일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또한 체육의 대중화실현에 절실히 필요한 고무발판생산공정을 꾸리는 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

당의 예방의학방침관찰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중앙과 지방의 위생방역기관사이 실시간감시통보체계 확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생방역사업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감시통보체계를 전국적범위에서 실현하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명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당의 구성과 의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받들어갈 신심에 넘쳐 보건의료와 위생방역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국가를 위하여 리용한 실시간적인 질병감시통보체계를 확립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 파키스탄전국준비위원회 결성이 20일 카라치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파키스탄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자메드 안사리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발원봉부회시키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 사회주의위업과 인류사주위업에 쌓아올린 그의 거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 국회 상원 의원 아마르 지트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 결성식이 21일 바젤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이 채택되었다. 김일성동지는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백두령장이시며 걸출한 국가지도자, 천재적인 사상가로서 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잠시하신

자강력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간다

조진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이는 정치적의의와 전제없는 로적성공과 맞이하기 위하여는 나라가 부강해질 수 밖에 없는 가운데 강인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강의 힘과 기술로 도의 정열정신을 제각각 발휘하여 반응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였으며 이은교한수리에 대한 순수한 불생산공정을 꾸리고 그 어느 때든 지 깨끗한 물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각이한 규격의 빛반사유리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미 질높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도에술극장개건과 새로 일떠서시는 문헌소전단아형소에 보장해주어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호평을 불러일으켰다. 수입유리에 비하여 원가를 훨씬 낮출수 있는 빛반사유리 생산공정이 새로 꾸러졌으며 세 많은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원산시설에 필요한 고압전력 및 빛반사유리를 마음먹어내는 데서 원만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었으며 도자재의 힘으로 건물들의 문화성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높일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또한 체육의 대중화실현에 절실히 필요한 고무발판생산공정을 꾸리는 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적성공과 맞이하 일념으로 생산물적적성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평양금속기계공장에서 인-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로동당만세소리 울리는 리상촌에 참된 당일군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가 보지 않던 일이 맡겨 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산평에 시대를 울리는 한 당일군이 있다.

공백하고 허박하던 심심산골에 사회주의리상촌을 일떠세우기 위해 20여년세월 아갈라라 애써 온 농촌당일군.

몸은 비록 이 나라의 한복과 있어도 언제나 당중앙위위회회관

에 마을을 있고 우리 당의 현대 사회주의농촌건설시상을 실현하는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 온 무산군 문암리당비서 박길만동무의 삶의 갈래가 되는 감동깊은 사연들로 엮여져 있다.

위험이었던 한때 농촌을 로동당만세소리 높이 울리는 살기 좋은 리상촌으로 보란듯이 추켜세운 박길만동무의 고귀한 삶의 자욱자욱은 우리 당이 바라고 기대가 부르는 참된 당일군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을 준다.

이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박길만동무는 농업과학기술자들을 직접 스승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을 농장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 나갔다. 농장주변에 매장되어 있는 나무를 캐어 비료를 만들어 쓰도록 하고 자체의 미생물복합비료《공장》에서 생산한 생물활성분을 리용하여 두엄의 질도 보다 높게 하였다.

정성을 기울인 보람이 있어 땅은 점차 부근부근해졌다. 박길만동무는 해마다 기름져 가는 땅의 승격을 늘려 때마다 마치도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듯 했다.

땅을 갈아엎는데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꾸준히, 묵묵히 노력을 기울여야만 빛을 볼수 있었다.

박길만동무는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실무적인 사업으로 가 아니라 농장원들을 땅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는 사업으로 심화시켜 나갔다.

이런 일이 있었다.

박길만동무는 험것을 뜯어 내려고 하였다.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나무 집짐을 우리는 나인들의 모습에 눈앞에 비쳐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듯 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넘겨야 땅을 지키고 농장을 살리겠다며 피눈물을 삼키며 부림수들을 보존하고 그 마리수를 늘려나갔다. 리당비서의 모습을 보면 농장원들은 땅의 주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차츰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가을날이었다. 그날도 습판대로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선 박길만동무는 제1작업반 강변이밭쪽에서 불빛이 비치지는 것을 보았다. 다가가보니 누군가가 전지불을 켜고 강변이밭작업을 하고있었다. 한동무였다.

그로 말하면 이전에 가정문제로 고민하면서 출근조차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이었었다. 그래서 박길만동무가 자주 집에 찾아다니며 교양도 하고 교무도 해주었다. 그가 현저히 달라졌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남들이 깨어나기도 전에 밤에 나와 땅을 흘리는것을 보니 눈물이 난 정도로 기뻐했다. 이 땅에 또 한명의 주인이 생긴것이 너무도 반가웠고 박길만동무는 저모르게 한동무를 외락 그ريان 하였다.

이렇게 생각한 박길만동무는 기와분조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분조들과 함께 삼을 들어본적이 없다. 바지가랑이를 걸고본적이 산을 뚫고 저 언덕을 오르내리며 고심하던 끝에 질좋은 원토장을 찾게 되었다. 얼마후 기와분조는 생산능력이 큰 《기와분조》로 되었다. 여기서 생산한 갖가지 기와들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이며 리문화회관의 면도일신식기와 집짐의 지붕은 물론 창고도 돼지우리까지 의무우고도 남아 다른 리와 군에서까지 가져가게 되었다.

리소제지역은 변의봉사건물도 일떠섰다. 목욕, 리방, 미용, 옷수리, 신발수리, 사진봉사는 물론 식료기공공정까지 갖추어진 종합적인 변의봉사지사를 갖춘 사람들도 이제는 도시사람들이 부럽지 않다고 웃음꽃을 피웠다.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심이 높다는것이 박길만동무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재산이었다.

그는 매일 자전거리를 타고 농장을 서너바퀴 돌이보곤 하였다. 지친 다리를 팔며 대문안으로 들어서는 박길만동무를 맞이하는 안해의 눈가에 눈물이 쫄고 아물었다. 남편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던것이다. 따르며 미역을 같은듯 화락하니 웃는 웃으며 끼어든 안경...

이 당가를 얻으려 거려고 할 때였다.

《그렇게 없소.》

이렇게 말한 리당비서는 어느새 환자를 뒹고 있었다. 나라도 많은 리당비서가 실신상태에 처한 평범한 농장원들을 구원하려고 땀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간 그 모습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새겨주었다.

몇해전 어느 한 작업반을 다룬 지역으로 이동시절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였다.

《그날에 이사간다고 제 자식이 남의 자식이 되겠소? 낯선 곳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 한테 데 없겠소? 보십시오.》

하여 이사직을 실은 자동차에는 변일기며 제재, 막막, 무림소, 식료기공정비 그리고 작업반에서 키우던 집짐승까지 모두 실리게 되었다.

《동무들, 거기 가서도 일을 잘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하는 리당비서의 손을 꼭 잡으며 떠나는 사람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였다.

《여디 가도 내 고향 문암평을 잊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자동차들이 발동음을 걸었다. 자동차행렬이 오개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두손을 흔들며 보내주는 박길만동무의 두눈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것은 혈연의 정 의 산물이었다. 인간의 갈수록 없는 정성의 분출이었다.

공백하던 심심산골에 천지개벽을 일으킨 농촌당일군에 대한 이가기는 무엇이 될수 있는가.

진정한 주인에게는 불모의 땅이 없다

스물세해전 가을이었다.

우물쭈물한 산골짜기를 따라 한데의 자동차가 달리고있었다.

《자, 여기서부터 문암리다.》

운전사의 말에 심장을 깨고 차장판을 환동안 주시하던 처녀애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짙게 어렸다.

《아버지, 이제부터 여기에서 살게 되나요?》

대담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박길만동무의 마음에도 천근추가 실리는듯 하였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으니 과연 중앙감에 가슴이 벅해졌던것이 아니었나?

무엇부터 어떻게 할것인가를 두고 며칠간도 모태기던 그는 드디어 결심을 내렸다.

(농사에 선각적인 힘을 넣자. 여기에 농장의 발전의 길이 있다.)

당시 농장은 알뜰생산에서 매우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다. 그 중 적잖이 벅찼다는 강변이밭에서 고추약재도 정보당 2 t 남짓이 거둬들이고있었고 흑박한 땅에서는 무수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해발고도가 높고 경지의 대부분이 비탈밭인데다가 자갈과 모래층으로 이루어져있었다보니 농사에 매우 불리하였다.

로동들을 돌아보던 박길만동무는 저도모르게 발머리로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매마르듯 웃으며 농장을 한눈에 살피고 있었다. 참된 주인을 갈망하는 대지의 예라는 호소가 들려오는듯싶어 가슴이 저러었다.

이듬해 봄 박길만동무는 밭정리대대적으로 할것을 받기하

인 문제가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박길만동무는 농업과학기술자들을 직접 스승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을 농장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 나갔다. 농장주변에 매장되어 있는 나무를 캐어 비료를 만들어 쓰도록 하고 자체의 미생물복합비료《공장》에서 생산한 생물활성분을 리용하여 두엄의 질도 보다 높게 하였다.

정성을 기울인 보람이 있어 땅은 점차 부근부근해졌다. 박길만동무는 해마다 기름져 가는 땅의 승격을 늘려 때마다 마치도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듯 했다.

땅을 갈아엎는데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꾸준히, 묵묵히 노력을 기울여야만 빛을 볼수 있었다.

박길만동무는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실무적인 사업으로 가 아니라 농장원들을 땅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는 사업으로 심화시켜 나갔다.

이런 일이 있었다.

박길을 매던 한 농장원이 한 모습을 내뿜어 쯤얼거리는데 모습을 보니 박길만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세쎄, 호미질을 할 때마다 돌 꺾히는 소리. ...저기 뿔방연 일하다가 호미자루가 빠지면 돌을 맞을 돌조자 찾지 힘들다는데...》

그가 회억에 내뿜어진 소리가 다시 귀여주며 박길만동무는 말하였다.

《부지런한 농사군에게 나쁜 땅이 없다.》

그날 박길만동무는 농장원들에게 참된 농사군의 도리를 새겨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어느날 새벽 로동을 돌아보면 박길만동무는 손뼉이 꼰했다.

행여나 하여 이 작업반, 저 작업반을 다 다다보았으나 약속은 못하고 있었다. 며칠째 작업장도를 부엌 높여서인지 모두들 지니질 같았다. 전날 저녁총화때 작업반장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던 단 백번을 쳐야 할 그들마저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것이다.

《아!》

박길만동무는 험것을 뜯어 내려고 하였다.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나무 집짐을 우리는 나인들의 모습에 눈앞에 비쳐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듯 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넘겨야 땅을 지키고 농장을 살리겠다며 피눈물을 삼키며 부림수들을 보존하고 그 마리수를 늘려나갔다. 리당비서의 모습을 보면 농장원들은 땅의 주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차츰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가을날이었다. 그날도 습판대로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선 박길만동무는 제1작업반 강변이밭쪽에서 불빛이 비치지는 것을 보았다. 다가가보니 누군가가 전지불을 켜고 강변이밭작업을 하고있었다. 한동무였다.

그로 말하면 이전에 가정문제로 고민하면서 출근조차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이었었다. 그래서 박길만동무가 자주 집에 찾아다니며 교양도 하고 교무도 해주었다. 그가 현저히 달라졌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남들이 깨어나기도 전에 밤에 나와 땅을 흘리는것을 보니 눈물이 난 정도로 기뻐했다. 이 땅에 또 한명의 주인이 생긴것이 너무도 반가웠고 박길만동무는 저모르게 한동무를 외락 그ريان 하였다.

이렇게 한해, 두해가 흐르고 10년, 20년이 지났다.

이제는 이 산골농장이 10여년째 국가알뜰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는 자랑대는 농장으로 되돌아갔다.

지년에 봄 농장은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순위우승기를 또다시 수여받았다. 그 우승기는 대대로 한 농촌당일군이 애어온 깨끗한 땅의 자욱자욱이며 그의 무한한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인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박길만동무는 기와분조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분조들과 함께 삼을 들어본적이 없다. 바지가랑이를 걸고본적이 산을 뚫고 저 언덕을 오르내리며 고심하던 끝에 질좋은 원토장을 찾게 되었다. 얼마후 기와분조는 생산능력이 큰 《기와분조》로 되었다. 여기서 생산한 갖가지 기와들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이며 리문화회관의 면도일신식기와 집짐의 지붕은 물론 창고도 돼지우리까지 의무우고도 남아 다른 리와 군에서까지 가져가게 되었다.

리소제지역은 변의봉사건물도 일떠섰다. 목욕, 리방, 미용, 옷수리, 신발수리, 사진봉사는 물론 식료기공공정까지 갖추어진 종합적인 변의봉사지사를 갖춘 사람들도 이제는 도시사람들이 부럽지 않다고 웃음꽃을 피웠다.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심이 높다는것이 박길만동무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재산이었다.

그는 매일 자전거리를 타고 농장을 서너바퀴 돌이보곤 하였다. 지친 다리를 팔며 대문안으로 들어서는 박길만동무를 맞이하는 안해의 눈가에 눈물이 쫄고 아물었다. 남편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던것이다. 따르며 미역을 같은듯 화락하니 웃는 웃으며 끼어든 안경...

군대에 다녀온다더니 저 몸길로 오다가 넘어진것이 분명했다.

《분조장대뿐이지요? 이런 걸음이 벌써 열번째예요. 당신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나야 수백세대를 책임진 어머니가 아니요.》

얼마후 그 분조장은 품에도 바라던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는 조선로동당대행에 들어서던 날 팔레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녀나 그도 임당보충인원 리당비서가 자기보다 더 많이 속을 때었고 그 시각 마음속으로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있음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가지많은 나무 비탈밭을 없애고 수백세대를 떠맡은 박길만동무에게는 마음씨가 할 일이 참으로 많았다. 가정에서 경사조 생거도, 안락한 일일 생거도 사람들은 스스로를 리당비서의 절대부러워 두었다.

언제인가 한 농장원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박길만동무는 정신없이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생명이 시간을 다루고있었다.

뒤따라 들어선 사람들

이렇게 말한 리당비서는 어느새 환자를 뒹고 있었다. 나라도 많은 리당비서가 실신상태에 처한 평범한 농장원들을 구원하려고 땀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간 그 모습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새겨주었다.

몇해전 어느 한 작업반을 다룬 지역으로 이동시절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였다.

《그날에 이사간다고 제 자식이 남의 자식이 되겠소? 낯선 곳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 한테 데 없겠소? 보십시오.》

하여 이사직을 실은 자동차에는 변일기며 제재, 막막, 무림소, 식료기공정비 그리고 작업반에서 키우던 집짐승까지 모두 실리게 되었다.

《동무들, 거기 가서도 일을 잘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하는 리당비서의 손을 꼭 잡으며 떠나는 사람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였다.

《여디 가도 내 고향 문암평을 잊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자동차들이 발동음을 걸었다. 자동차행렬이 오개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두손을 흔들며 보내주는 박길만동무의 두눈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것은 혈연의 정 의 산물이었다. 인간의 갈수록 없는 정성의 분출이었다.

공백하던 심심산골에 천지개벽을 일으킨 농촌당일군에 대한 이가기는 무엇이 될수 있는가.

정중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인민을 사랑하는 당일군. 땅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대지를 살찌우고 인간을 키우는 참된 당일군이 있는 곳에 사회주의리상촌이 일떠선다.

모든 농촌당일군들이 땅이 맡겨준 한 초소를 자기 힘으로 키워 이 땅을 사수하겠다는 이상한 각오 안고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 온 나라 방방곡곡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사회주의무용도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게 될것이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더 높을 울려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순 영

이듬해 봄 박길만동무는 밭정리대대적으로 할것을 받기하

덕천시 상하수도 난방 사업소에서

본 글을 쓰지 않고 도 실리를 얻을수 있는 것이 메기양이다. 이것은 덕천시상하수도 난방사업소의 덕이사 출천에 의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오수정화장의 침전물이 부패되면서 생기는 열에 의해 침전물의 물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높고 그속에서 해충들이 많이 번식할수 있다는것을 고려해볼 때 메기양도 제일 적합한 천적이였다. 더우기 이 사업은 물고기메기를 자연적으로 해결할 대 해결책이요로 철저히 배양하는 일이었으므로 주지할 것도 없었다.

사업에서의 메기양어는 이렇게 시작되였고 결과는 모두들 놀라웠다. 못에 넣어준 수천마리의 새끼메기들이 한주일후에는 3-4배이상 자랐고 석달이 좀 지나서는 마리당 무게가 평균 80g, 최고 1.3kg정도 까지 나갔다. 성장속도가 너무 빠르니 메기의 용산에 해충들이 미처 기생할새 없었다. 그리하여 양어 첫해에 위생학적으로 담양된 2t 이상의 메기를 거두어들이는 사업에서는 이것을 종업원들에게도 공급하고 경영활동에도 효과적이 이용하였다. 별로 들인 힘이 없이 큰 실리를 얻게 한 이 사실은 사업소일군

이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박길만동무는 농업과학기술자들을 직접 스승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을 농장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 나갔다. 농장주변에 매장되어 있는 나무를 캐어 비료를 만들어 쓰도록 하고 자체의 미생물복합비료《공장》에서 생산한 생물활성분을 리용하여 두엄의 질도 보다 높게 하였다.

정성을 기울인 보람이 있어 땅은 점차 부근부근해졌다. 박길만동무는 해마다 기름져 가는 땅의 승격을 늘려 때마다 마치도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듯 했다.

땅을 갈아엎는데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꾸준히, 묵묵히 노력을 기울여야만 빛을 볼수 있었다.

박길만동무는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실무적인 사업으로 가 아니라 농장원들을 땅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는 사업으로 심화시켜 나갔다.

이런 일이 있었다.

박길을 매던 한 농장원이 한 모습을 내뿜어 쯤얼거리는데 모습을 보니 박길만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세쎄, 호미질을 할 때마다 돌 꺾히는 소리. ...저기 뿔방연 일하다가 호미자루가 빠지면 돌을 맞을 돌조자 찾지 힘들다는데...》

그가 회억에 내뿜어진 소리가 다시 귀여주며 박길만동무는 말하였다.

《부지런한 농사군에게 나쁜 땅이 없다.》

그날 박길만동무는 농장원들에게 참된 농사군의 도리를 새겨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어느날 새벽 로동을 돌아보면 박길만동무는 손뼉이 꼰했다.

행여나 하여 이 작업반, 저 작업반을 다 다다보았으나 약속은 못하고 있었다. 며칠째 작업장도를 부엌 높여서인지 모두들 지니질 같았다. 전날 저녁총화때 작업반장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던 단 백번을 쳐야 할 그들마저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 리당비서는 어느새 환자를 뒹고 있었다. 나라도 많은 리당비서가 실신상태에 처한 평범한 농장원들을 구원하려고 땀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간 그 모습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새겨주었다.

몇해전 어느 한 작업반을 다룬 지역으로 이동시절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였다.

《그날에 이사간다고 제 자식이 남의 자식이 되겠소? 낯선 곳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 한테 데 없겠소? 보십시오.》

하여 이사직을 실은 자동차에는 변일기며 제재, 막막, 무림소, 식료기공정비 그리고 작업반에서 키우던 집짐승까지 모두 실리게 되었다.

《동무들, 거기 가서도 일을 잘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하는 리당비서의 손을 꼭 잡으며 떠나는 사람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였다.

《여디 가도 내 고향 문암평을 잊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자동차들이 발동음을 걸었다. 자동차행렬이 오개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두손을 흔들며 보내주는 박길만동무의 두눈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것은 혈연의 정 의 산물이었다. 인간의 갈수록 없는 정성의 분출이었다.

공백하던 심심산골에 천지개벽을 일으킨 농촌당일군에 대한 이가기는 무엇이 될수 있는가.

정중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인민을 사랑하는 당일군. 땅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대지를 살찌우고 인간을 키우는 참된 당일군이 있는 곳에 사회주의리상촌이 일떠선다.

모든 농촌당일군들이 땅이 맡겨준 한 초소를 자기 힘으로 키워 이 땅을 사수하겠다는 이상한 각오 안고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 온 나라 방방곡곡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사회주의무용도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게 될것이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더 높을 울려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순 영

이렇게 말한 리당비서는 어느새 환자를 뒹고 있었다. 나라도 많은 리당비서가 실신상태에 처한 평범한 농장원들을 구원하려고 땀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간 그 모습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새겨주었다.

몇해전 어느 한 작업반을 다룬 지역으로 이동시절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였다.

《그날에 이사간다고 제 자식이 남의 자식이 되겠소? 낯선 곳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 한테 데 없겠소? 보십시오.》

하여 이사직을 실은 자동차에는 변일기며 제재, 막막, 무림소, 식료기공정비 그리고 작업반에서 키우던 집짐승까지 모두 실리게 되었다.

《동무들, 거기 가서도 일을 잘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하는 리당비서의 손을 꼭 잡으며 떠나는 사람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였다.

《여디 가도 내 고향 문암평을 잊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자동차들이 발동음을 걸었다. 자동차행렬이 오개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두손을 흔들며 보내주는 박길만동무의 두눈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것은 혈연의 정 의 산물이었다. 인간의 갈수록 없는 정성의 분출이었다.

공백하던 심심산골에 천지개벽을 일으킨 농촌당일군에 대한 이가기는 무엇이 될수 있는가.

정중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인민을 사랑하는 당일군. 땅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대지를 살찌우고 인간을 키우는 참된 당일군이 있는 곳에 사회주의리상촌이 일떠선다.

모든 농촌당일군들이 땅이 맡겨준 한 초소를 자기 힘으로 키워 이 땅을 사수하겠다는 이상한 각오 안고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 온 나라 방방곡곡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사회주의무용도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게 될것이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더 높을 울려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순 영

이렇게 말한 리당비서는 어느새 환자를 뒹고 있었다. 나라도 많은 리당비서가 실신상태에 처한 평범한 농장원들을 구원하려고 땀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간 그 모습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새겨주었다.

몇해전 어느 한 작업반을 다룬 지역으로 이동시절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였다.

《그날에 이사간다고 제 자식이 남의 자식이 되겠소? 낯선 곳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 한테 데 없겠소? 보십시오.》

하여 이사직을 실은 자동차에는 변일기며 제재, 막막, 무림소, 식료기공정비 그리고 작업반에서 키우던 집짐승까지 모두 실리게 되었다.

《동무들, 거기 가서도 일을 잘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하는 리당비서의 손을 꼭 잡으며 떠나는 사람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였다.

《여디 가도 내 고향 문암평을 잊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자동차들이 발동음을 걸었다. 자동차행렬이 오개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두손을 흔들며 보내주는 박길만동무의 두눈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것은 혈연의 정 의 산물이었다. 인간의 갈수록 없는 정성의 분출이었다.

공백하던 심심산골에 천지개벽을 일으킨 농촌당일군에 대한 이가기는 무엇이 될수 있는가.

정중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인민을 사랑하는 당일군. 땅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대지를 살찌우고 인간을 키우는 참된 당일군이 있는 곳에 사회주의리상촌이 일떠선다.

모든 농촌당일군들이 땅이 맡겨준 한 초소를 자기 힘으로 키워 이 땅을 사수하겠다는 이상한 각오 안고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 온 나라 방방곡곡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사회주의무용도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게 될것이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더 높을 울려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순 영

일겨라 특유의

본 글을 쓰지 않고 도 실리를 얻을수 있는 것이 메기양이다. 이것은 덕천시상하수도 난방사업소의 덕이사 출천에 의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오수정화장의 침전물이 부패되면서 생기는 열에 의해 침전물의 물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높고 그속에서 해충들이 많이 번식할수 있다는것을 고려해볼 때 메기양도 제일 적합한 천적이였다. 더우기 이 사업은 물고기메기를 자연적으로 해결할 대 해결책이요로 철저히 배양하는 일이었으므로 주지할 것도 없었다.

사업에서의 메기양어는 이렇게 시작되였고 결과는 모두들 놀라웠다. 못에 넣어준 수천마리의 새끼메기들이 한주일후에는 3-4배이상 자랐고 석달이 좀 지나서는 마리당 무게가 평균 80g, 최고 1.3kg정도 까지 나갔다. 성장속도가 너무 빠르니 메기의 용산에 해충들이 미처 기생할새 없었다. 그리하여 양어 첫해에 위생학적으로 담양된 2t 이상의 메기를 거두어들이는 사업에서는 이것을 종업원들에게도 공급하고 경영활동에도 효과적이 이용하였다. 별로 들인 힘이 없이 큰 실리를 얻게 한 이 사실은 사업소일군

평양의 정다운 우리 집 식구들

이마에 붙은 땀방울을 닦아주며 이제는 이렇게 할가 맡길지 어머니에게 한 청년이 다가서며 어디가 가는 특유에군인동무 어디가 다정히 묻는것이였습니다. 김민유형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며 간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하면서 승승차가 있는 곳으로 저의 어머니와 오빠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바로 안어실어머니의 사위인 민경태 승승차사업소 운전자 김철동무였습니다. 입원치료를 받던 김민유형원은 귀한 약재들과 식료품들을 가지고 배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벨라루시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김형준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5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시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봉정에서 대사는 결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길

주도세밀한 작전과 대중의 정신력폭발

본래언선지역인 장풍군이 많았다.

지방공업공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벌어져 인민생활향상에서 큰결실을 내리고있다. 인민들의 생활수준과 생활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되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수준과 생활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되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수준과 생활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되고 있다.

일군들의 사업에서

본래언선지역인 장풍군이 많았다.

지방공업공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벌어져 인민생활향상에서 큰결실을 내리고있다. 인민들의 생활수준과 생활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되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수준과 생활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되고 있다.

독자의 편지

저는 신의주시에서 부모님과 특유형에군인인 오빠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평양에도 정다운 우리 집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대천구역 신리동 65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안어실어머니와 그의 딸 류정희, 사위 김철동무들입니다.

본사기자 김성일

이마에 붙은 땀방울을 닦아주며 이제는 이렇게 할가 맡길지 어머니에게 한 청년이 다가서며 어디가 가는 특유에군인동무 어디가 다정히 묻는것이였습니다. 김민유형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며 간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하면서 승승차가 있는 곳으로 저의 어머니와 오빠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바로 안어실어머니의 사위인 민경태 승승차사업소 운전자 김철동무였습니다. 입원치료를 받던 김민유형원은 귀한 약재들과 식료품들을 가지고 배

2월 중 지자기 현상

2월에 일기와 기타 지지풍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12일(15시-17시)	4일(21시-23시)
평양지방	17일(21시-23시)	7일(22시-24시)
4일(21시-23시)	20일(6시-7시)	12일(14시-16시)
7일(22시-24시)	26일(14시-16시)	18일(4시-6시)
	형진지방	23일(17시-19시)
	1일(18시-20시)	26일(13시-15시)

연예의 혁신자대렬이 들어서다.



본사기자 류규준은

흰눈 덮인 송도원에 아이들의 웃음꽃 만발한다

송도원 국제 소년 단 야영소에서 겨울철 야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깊이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러범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들어서면 황홀한 그 모습에 환성이 절로 터져나오는 내 조국의 자랑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는 지금 학생소년들의 겨울철야영이 한창이다.

올해초부터 우리 당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보인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을 또다시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었다.

정으로 따

한겨울에도 이 강산은 꿩새처럼 푸르네... 겨울철야영을 떠나기 위해 학생소년들이 들어선 평안구역내에 늙은이를 얹어보아도 뜨거운 격정의 열기가 온몸을 달구어준다.

배운나온 사람품속에는 아이들의 부모형제들만 있는것이 아니다. 바쁜 속에서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나온 일꾼들도 적지 않다.

즐거운 야영길을 떠나는 아이들을 축하해주며 친부모마냥 손도 잡아주고 주의할 점도 일깨워주는 그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는 어이하여 낯설지 않고 경이로만 느껴진다.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 조국에서 부림없이 자라면서 어렸던 그것이 몸에 배인 새 세대들이기때문이라.

방-사람의 직통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리며 역구내를 서서히 벗어났다.

손을 흔들려주는 부모들을 점도둑 바라보던 아이들이 기쁨속에 열차안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처럼 이곳에서 서번 누구에게나 대조되는 모습이 떠오를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6 000만명을 헤아리는 피난민대열, 그속에는 알날을 기억할수 없는, 희망과 꿈을 잃은 아이들도 적지 않다.

세기의 꽃에서 악의 세력들이 순진한 아이들에게까지 불행과 고통을 강요할 때 이 땅에서는 학생소년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터져올라 사람들에게 밝아오는 강성조선의 패력을 더욱 확신있게 그려보고 있다.

어머니들이 펼쳐준 동해명승 송도원의 가슴뜨거운 화폭들, 회화과 광판, 웃음과 노래,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아이들의 야영생활을 우리는 이해에 전한다.

뜻한 강산

푸신한 의자, 천정에 설치해 놓은 여러대의 액정텔레비전... 모든것이 편리하게 갖추어진 열차안에서 재미나는 문화회화도 보고 흥겨운 오락회도 펼쳐놓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교원들은 나름대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추위를 더듬는 금성학원 교원 김순영동무의 얼굴에 가벼운 웃음이 비쳤다.

지나해 12월 송도원으로 겨울철야영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 라선방에 집이 있는 온정이는 방학도 가지 않고 손뼉이 기다렸고 헌산방의 정민이는 양복을 끼고마자 인츰 평양으로 올라갔다. 빈집을 탈려와 자식들을 비례준 어머니들도 있었다.

송도원의 야영소식은 이렇게 아이들과 그 부모들까지도 무척 흥분시켰다.

한편 평성외국어학원 초급반 3학년 4반을 담당한 처녀교원 리은옥동무는 마주않은 소년단원위헌장인 정남영학생의 얼굴을

아이들의 꿈에는

세계절이 없다

송도원에는 아이들의 꿈이 다 있다. 봄, 여름, 가을은 물론 겨울에도 세상에 볼도 없는 공전같이 황홀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문을 활짝 열어준 어머니 우리 당이다.

야영소에 도착한 아이들이 야영장에 들어서며 터지는 갈망의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진다.

야영생들의 동심에 맞게 달, 별을 비롯한 각종 무늬들로 장식한 야영각의 천정과 바닥, 현대적인 송상기, 연분홍색, 파란색집들과 액정텔레비전, 캠코, 현대적인 가구들이 그 흔하게 갖추어진 시설들을 비롯하여 이층의 거실이나 최고의 문명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아이들의 꿈의 세계였다.

너무 좋아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소소한 행복의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마시려는 건다는 소리에 환성을 올렸다. 그만큼 마시실스키장은 아이들이 제일로 그려본 곳이었다.

흰눈덮인 마시실은 그야말로 한복의 그림자였다. 그새 대화방까지 고속도가 새 생겨나 운정되고있고이것이 이새복을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여러가지 색깔의 스키복을 차려입고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흰눈우에 피어난 꽃송이들같았다.

스키기구를 갖추고 어깨가 으쓱하여 초급주자로 나선 야영생들이 사기가 나서 달려보려고 했지만 어렵지 않았다. 웃음을 짓던 스키교원들이 스키신기와 벗기, 각기, 방향바꾸기, 정지, 돌기 등 스키타기의 기초동작들을 친절히 배워주는 야영생들의 기쁨을 시간의 갈래 따라 높아 갔다. 한시간 남짓해서 벌써 빠른 아이들은 초급주자로 자유자재로 지쳐내려왔다. 확실히 그

세계절이 없다

매일을 열어나가는 내 조국의 역전 기상이기도 하였다.

전시기보다 스키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마시실로텐트스키장소 부원 고일진동무는 강소에서 지난 해에 야영생들과 손님들을 위한 초급, 중급, 고급, 전문급 스키 기술론제강을 집필하고 그에 기초하여 스키교육방법을 꾸준히 개선해온 결과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아이들은 초급주로서 헬멧을 쓰고 신바람나게 내려오기도 하고 스키장에서 스키트러기와 헬멧치기로 시간을즐 불렀다.

스키장에서 떡볶이와 봉고밥과 급급한 초급반의 한 학생은 말했다.

스키를 타고내려올 때에는 마치 새가 날 심정이었다고, 정말 이곳을 뜨고싶지 않아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겨울철야영을 하러 온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스키를 타며 행복의 나래를 활짝 펼치도록 은정 어린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에하는 원수님.

다산한 어머니 그 사랑은 아이들은 다는 모든다.

하지만 이제 크면 마시실에 대한 아름다움 추억과 더불어 친연 산악을 다스려 인민에게 최한한 문명을 안겨주시 원수님의 전실같은 사랑을 한생토록 잊지 않을것이다.

한편 야영소에서는 어떤 다채로운 생활들이 펼쳐지고있는가. 실제유수관 및 물놀이장에서는 용원수기가 요란하였다.

수영장에서는 금성학원과 평성외국어학원 학생사이의 수영경기가 치열하게 진행되고있었다. 한겨울에도 더운물에서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아이들, 이들에게 여름철의 송도원의 바다가 부럽지 않은가 그대여 물어선 무엇이라. 체육관에서 승백내기

제곱들을 주의있게 돌아보느라 아이들은 여념이 없었다. 조선의 극조인 참배에서 지도교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열심히 적기도 하고 진지하게 살펴보기도 하는 아이들의 가슴에 애국의 마음은 더욱 자랐으리라.

얼마나 북반은 아이들이인가. 당의 사랑속에 곳곳에 일떠세는 문화정서생활기지에서 온갖 행복을 향유하는 아이들이었지만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는 보는것, 누리는데있어서 다사로운 문명의 최정점이 아닌가.

야영기에 비친

보탑의 맹세

야영생활의 열흘간은 보통의 야영과는 비교수 없이 다르게 아이들을 성장하게 하였다.

아직 나라사정이 어려운 속에서 서도, 원수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악랄하게 강행되는 참에야 정세속에서도 송도원으로의 야영길을 더 활짝 열어주시는 것에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으로 야영생들은 시시각각 가슴을 적시고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저녁이면 저녁마다 지나가나 원수님을 저주하는 아이들이 마음의 일기장과 글자들에 새겨지고있다. 교원들은 누구나 말을 한다. 그새 아이들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야영소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주변리사업을 제일먼저 하고싶어 이른 새벽에 약속이나 한듯 달려나온 아이들이 대견하여 가슴이 뭉클지어들었다는 최창익 장인초급중급교원 리정실동무의 이야기가 들리어오기도 하고 그그대 생일식당에서 친부모의 심정이 담긴 생일상을 받아안은 충성이가 일기장에 온눈을 영원히 잊지 않고 학습을 더 잘해서 원수님의 사랑에 꼭 보답하겠다는 맹세를 남겼다는 평원군 삼봉중급중급초급반 교원



얼마전 우리는 온 나라에 세 차례 타던지는 과학기술열풍속에 우리 당의 진보과학기술인쇄화, 인제강국화실현의 또 하나의 믿음직한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세된 동림동 미래원을 찾았다.

소박하면서오 번듯하게 꾸러진 미래원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편리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실리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남모르는 헌신에 대하여 뜨겁게 새겨안을수 있었다.

동림동의 매일을 보는 곳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시대는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과학기술로 살아가는 시대이며 실력전인 시대입니다.》

2층에 꾸러진 전자열람실에서 우리와 만난 이곳 일꾼인 리미옥동무는 연건면적 9백여㎡나 되는 미래원은 군단위원회의 지도하에 군에서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웠다고 글자에 넘쳐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미래원의 관리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충분한 자라기지를 구축해놓는것과 함께 자라기지를 위한 실정에 맞게 짜고들어 진행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남급 이 문제를 가지고 토

자부하던 지난 시기 일본채를 심 각히 돌려보지 않을것이다.

하여 이들은 군단위원회의 지도하에 군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와 학교별로 미래원운영의 날을 정하고 현대과학기술자료를 파 군의 실정에 맞는 자라기지를 세우며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먼저 단원별로 담당자들을 임명하고 투자자들이 찾아오기 전

위 대 한

병도 자기 집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오랜 역사적과정을 거쳐 발전중화되어온 민족음식들에는 습기롭고 근면한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 조선사람의 구미와 기호를 비롯한 민족적특성이 진하게 반영되어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독특한 민족음식들이 많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습기롭고 근면한 인민이다.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 조선사람의 구미와 기호를 비롯한 민족적특성이 반영된 민족음식이운데는 떡볶이도 있다.

우리 조상들은 먼 옛날부터

떡은 콩

떡을 빻을 때는 단지 등에 1-3일동안 넣어서 굵은 자배우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떡은 콩은 빨갛고고 먹기 좋다.

떡은 콩은 건강에 매우 좋은 우수한 민족음식이다.

떡은 콩에는 면역강화, 암세포 증식억제작용을 하는 성분들과 항산화작용을 하는 생리활성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암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질병들의 예방치료에도 효과적이다.

떡은 콩은 빨갛고고 먹기 좋다.

떡은 콩은 건강에 매우 좋은 우수한 민족음식이다.

떡은 콩에는 면역강화, 암세포 증식억제작용을 하는 성분들과 항산화작용을 하는 생리활성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암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질병들의 예방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습지보호와 지속적리용

《세계습지의 날》로 정해졌다.

습지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하나인 《람사르협약서기구》는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의의가 있는 습지들을 습지목록에 등록하고 그 보호와 지속적리용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있다.

올해 《세계습지의 날》의 주제는 《미래를 위한 습지:지속적인 생활》이다.

강화한 후속과도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어 습지의 나라라고도 할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습지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리용하기 위한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요습지지역을 절제 및 습지보호구로 선정하고 그 보호관리를 강화하

아주 좋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떡볶이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팔로놀도 풍부하게 포함되어있으므로 면역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며 비성당, 빈혈, 탈모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들도 치료한다고 한다.

사람의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떡은 콩은 효능높은 건강음식으로 되고있다.

이처럼 떡기 좋은것이나 건강에도 아주 좋으며 오랜 역사를 가진 떡볶이와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는 떡볶이를 먹는것이 아니라 떡볶이를 먹는것이다.

습지자원의 보호와 지속적리용에서 이룩된 우리 나라의 성과들을 두고 국제사회의 《조선의 습지는 조선뿐 아니라 전세계의 보물이다.》라고 찬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자연보존령령 중앙위원회 연구사 박

습지보호와

지속적리용

《세계습지의 날》로 정해졌다.

습지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하나인 《람사르협약서기구》는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의의가 있는 습지들을 습지목록에 등록하고 그 보호와 지속적리용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있다.

올해 《세계습지의 날》의 주제는 《미래를 위한 습지:지속적인 생활》이다.

강화한 후속과도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어 습지의 나라라고도 할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습지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리용하기 위한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요습지지역을 절제 및 습지보호구로 선정하고 그 보호관리를 강화하

날날이 드러난 살인마들의 세군전흥제

미국노들이 외세를 돈대고 남침된 인민들의 운명이 최정권에서 놓이게 된다. 남조선피괴당국의 폭인비호밑에 미국의 세군전실패로 전락된 남조선의 험악한 실태가 그것을 말해준다.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당국이 미제침략군의 세군전실패를 눈감아준 사실을 폭로하는 문서를 공개하였다. 그 문서로 말하면 지난해 6월 1일 남조선의 질병관리본부가 남조선감염 미제침략군으로부터 직접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에는 2015년 4월 26일 미제침략군이 빈입한 군수물자속에 판저군과 케스트군도 들어있다는 내용이 기입되어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눈이 풀이빠지지 않았다면 이것을 못 보았을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미제침략군이 판저군과 케스트군을 끌어들이는 사실을 뻔히 알고있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미국의 거대한 집단합동작전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이나 그에 대해 인위적으로 내지 않고 침묵만 지키었다. 뿐만아니라 현재 판저군, 케스트군만으로 처벌을 받은 미군인 숫자는 사실상 확인하고도 찍소리 한마디 치지 못하고있다. 이 얼마나 썩어빠진 자들인가.

남조선당국이 미국상선의 세군전실패를 뻔히 알고있으면서도 여섯달동안이나 침묵으로 싸고들며 발표해왔음을 한것은 인민들이야 죽든말든 외세를 야합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치광이같은 범죄행위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 외세에 침략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각종 세군을 비롯한 대항상선기들을 아무 거르낌없이 끌어들이는 보수세당의 위풍을 두고 판저군과 케스트군보다 더 위험하다고 입을 모아 규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집권세력이

미제침략군의 세군전실패를 폭인비호하고 감추어온 나라는 그야말로 몸서리치는 악몽의 나라가 아닐수 없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세군무기들의 첫 피해자는 바로 그들 자신이기때문이다.

판저군과 케스트군과 같은 야성전염병을 퍼뜨리는 세군들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것으로 하여 국제법적으로도 그 사용과 이전이 철저히 금지되어있다.

연세간 미화군단의 한 우두머리는 다른 살인마들에게 비한 세군무기의 《우월성》에 대해 이렇게 떠벌인다. 있다. 《상대군사단들은 파괴공작을 위한 리셉시언 무기들이다. 세군전실패에 의해 생기는 병들은 인자 나타나지 않는다. 잠복기간이 길고 발견하기 힘든 이 수단들의 서서한 작용특성으로 하여 세군무기들에 의한 파괴행위가 있었을가를 실지 증명하고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말하여 죽음이 나뎠는 자연적인 요인으로 하여 일어났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수행에서 세군전을 중시하면서 그 실현에 방광적으로 매달려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이미 지난 조진전전부터 조진반도에서 세군전을 감행할 후악한 기도를 어찌하지 않고있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1946년과 1949년에 두번에 걸처 세군전실패를 여러차례 감행하였다. 그에 더해 하여 조진전쟁이 일어나자 곧 전제 조진 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한 세군전계획을 실현에 옮겼다.

미제는 지난 조진전쟁시기 세군무기와 함께 화학무기로 거르낌없이 사용하였다.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에만도 공화국북반부의 들과 농촌, 전진지점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였을뿐만아니라 팜주시를 비롯한 남조선

의 여러 지역에도 독해물을 살포하여 수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현수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에 대해 세상사람들이 얼마나 치가 떨렸으면 《단애》에 나오는 지옥의 악마인들 미제야수들보다 더하였는가. 《자유의 나선》은 읊고있다. > 존 롤러 단죄규탄하였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흐르고 세기는 바뀌었지만 미제살인귀들의 야수적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판저군법법인사자와 관련하여 발표한 합동조사결과파라내용은 그것을 보여준다. 사실상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남조선인민들의 눈이가는 빈이감정을 녹아웃 목적으로 실제자료를 대폭 축소순제하고 일부만을 추려서 발표하였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세군전반등도 서슴치 않았으며 미국과 그 주구들의 위협천만항을 추방할수 있다. 합동조사결과내용에는 미제침략군이 지난 2009년부터 6년동안 10여차례나 판저군을 비롯한 세군들을 남조선에 빈입하여 실패를 진행했다고 밝혀져있다. 미국이 북침세군전도발을 피하며 남조선당국의 목인과 방조밑에 악마의 세군들을 암암리에 끌어들이며 학지 적용을 위한 실험과 훈련등을 감행했다고는 1949년에도 주민들을 상대로 세군전 실패를 여러차례 감행하였었다. 그에 더해 하여 조진전쟁이 일어나자 곧 전제 조진 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한 세군전계획을 실현에 옮겼다.

미제는 지난 조진전쟁시기 세군무기와 함께 화학무기로 거르낌없이 사용하였다.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에만도 공화국북반부의 들과 농촌, 전진지점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였을뿐만아니라 팜주시를 비롯한 남조선

는 민행으로 인민들의 피눈물이 마물세가 있었다. 그러나 력대 남조선통치자들은 포퓰러 한 민족적자신심 없이 상진에게서 아무것동하며 오히려 미군법외를 더욱 조장하였다. 지어 미군법외에 항의하는 인민들에게 폭압의 칼을 들이대곤 하였다. 이런 현하에 쏘개바친 매국노들때문에 미제침략군이 아무런 구속도 받음 없이 남조선에 판저군, 케스트군과 같은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세군들까지 마구 끌어들이면서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강도도 거르낌없이 감행하고있는것이다.

더우기 문제가 되는것은 지금 남조선 피괴당국이 미국의 극악무도한 세군전도발 것으로 그 누구의 《생물무기위협》에 대한것으로 국구 비호하며 《협력력》을 읊을하는것으로 상진의 북침세군전도발책동에 적극 가담할 흥심을 드러내놓고 있는것이다. 남조선보수세당이아말로 북침야망에 사로잡혀 미군상선의 세군전책동에 적극 공모함으로써 이 땅에 민족의 재앙을 몰아오는 최세의 매국노들이다.

외세의 핵무기는 물론 각종 세군무기까지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북침준비도발에 팽팽하고있는 역적세당의 당풍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어느 한시도 견뎌수 없다.

남조선은 미국의 북침책정초기치, 생화학연습상으로도 빈번시키고 인민들을 그 희생물로, 실험대상으로 내맡기는것도 서슴치 않는자들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철골같이 보호해주는 우리의 자위적역명에 대해 이러저러한 시비질하는것은 실로 어이없는 망부충이다.

외세의 대항상선기들을 마구 끌어들이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장그려 버리는 역적세당들은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면함수 없다.

박 철 준

족제비도 낮을 뵈힐 추레

일본에서 성노예범죄책임문제를 놓고 피이한 잡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수상 아베를 비롯한 정부의 고위인물들이 너도나도 떨쳐나 일본남조선(함)으로 과거문제가 완벽하게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황당무계한 꾀말들을 늘어놓고있다. 그런가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발전한 문서에는 근대와 관련에 의한 강제병행자가 없었다는니, 성노예범죄는 말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니 뉘나 하는 망발을 쉼쳐대고있다. 도대체 일본당국자들에게 리상과 리달만 한 랑시이라도 있는가고 묻지 않을수 없다.

일본이 남조선과의 《합의》로 성노예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성노예범죄피해자는 남조선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있어 다른 아시아나라들과 유럽에도 있다. 때문에 이미 바로되지만 일본이 성노예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도덕적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며 전제 피해자들의 짓밟힌 명예에 대한 회복과 재발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완전히 해결될수 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이것을 모를수 없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외면하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적어말하면 성노예범죄에 대한 국가의 법적책임을 피회보자는것이이다.

일본성노예범죄가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군부의 의의 집행된 조직적인 특대행민인물적 죄악이라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공인된 사실이다. 과거 일본은 20만명의 조진녀성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녀성들을 강제병행, 탐지하여 전쟁터에 끌고다니면서 처유스러운 성노예살이를 강요하였다. 이것을 강제해주는 자료는 수없이 발표되었다. 성노예 강제병행행정의 한사발이었던 요시다 세이지는 자가 직접 취회하여 강제병행된 성노예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하면서 말그대로 인간상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대만주둔 일본군사법원이 수감되어 보낸 1942년 3월 12일부 전보문은 위안소관리인을 파견하는 문제까지 당시 수상이었던 도조가 판여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전 일본정부들도 처음에는 강자를 부러다가

위력한 증거물들이 나타나자 어쩔수없이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전 일본내각각관장장관 고노도 성노예범죄의 강제성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아베도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사죄》라는 말로 얼버무리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부인하려 들고있다.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면 현실적으로 돌아간행이다. 일본은 몇푼의 돈을 던져주기로 한 남조선과의 《합의》를 통해 저들이 성노예범죄문제를 해결을 위해 허바를 다한것 한 인상을 조성해놓고 그 책임에서 솔며 빠져보려 하고있다. 역시 간투까지 그지없는 일본의 정적들만이 할수 있는 나쁜한 추태이다.

일본당국자들의 태도에서는 과거범죄에 대해 반성하려는 성실성이라는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일본공성노예범죄를 폭로하는 숨찬 자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고 뱉고있고 있는것은 그야말로 족제비도 낮을 뵈힐 판피판행의행이다.

아마 일본은 전제 성노예범죄피해자들의 분노와 법적책임을 두려워 역치를 쓰며 오술을 부리는것 같은수법치고는 너무나도 졸렬하고 유치하다. 이렇게 말하여도 일본으로서의 입이 열려라고 할 말이 되겠다.

무엇이든지 되게 하지만 진실이 언변이야 아니다. 일본당국자들의 행태에서는 그것을 괴로움만 돼 쫓아보기 힘들다. 피해자들은 물론 일본에서 당국자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일본당국자들은 세계전선에서 저들의 도덕적 저질함과 정면회성을 다시한번 드러내놓았다.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그 어떤 권도술수로도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특대행민인물적죄악을 덮어버릴수 없으며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과거정상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것이 아니다. 무조건 할야 하며 회피할수 없는 법적, 도덕적의무이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과거정권의 길에 성근하게 나서야 한다. 이것은 일본자신을 위한 일이다.

리 학 남

인민들의 투쟁을 전국연전패당에게 철추를

본노한 남 녀인심이 또 다시 폭발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고용노동부를 내세워 로동자들에게 대한 위은 해고와 임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로동개혁 2대행정지침》이라는것을 발표하여 각계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켰고있다.

민주로총은 서울에서 보수당국의 《로동개혁 2대행정지침》을 반대하여 총파업행위를 결의했다. 단에는 집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위은 해고, 낮은 임금 등을 전제로 하는 로동개혁으로 구별 로동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고있다고 읊을를 타치면서 반인민적인 로동개혁정책을 저지 파탄시키고 생존권투쟁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끝없이 싸워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모든 산하로조단체들이 지역별로 파업결의대회와 일교 투쟁을 멈추지 않으며 로총을 비롯한 다른 로동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더욱 확대해나갈것을 신언 하였다.

집회에서 민주로총산하 한로조대표는 남조선의 전제 로동자들에 반대하는 현 보수당국의 반역적인 경제정책은 이미 실패한것이므로 하면서 이제 로동자들에 나서는 파업은 대중적인

투쟁으로 현 《정권》을 끝장내는데있다는것은 명백하다. 이땅에 침략적인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란핵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얼마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핵문제를 구실로 실시하여오던 대이란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서방 세계는 그것을 이란과 미국사이의 적대관계를 중시시키기 위한 미국의 주동적인 조치로, 《국제분쟁해소의 본보기》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이란정책은 조종도 말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이란은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자제로 개발한 탄도미사일들을 시험발사하였다. 이것이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모두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것들이며 이것은 곧 유엔결의에 대한 엄청난 위언으로 된다고 아무세기를 치면 미국은 이땅에 끌어들인 이란의 미사일활동에 편여하였다는 리유로 개별적인인물과 11개의 기업체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였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이미 실시했던 제재를 해제하면서 또 다른 제재를 가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자기들을 다 불어 이란핵협의내용을 순간에 휴지장으로 만들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반미자주의 길을 찾았을것을 보는 나파라에 미국은 이처럼 적대적정책을 집어

고침을 부리며 제멋대로 민중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행하는 독재물결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수많은 참가자들이 《위은 해고 반대》, 《임금삭감 반대》라는 구호판을 들고 지방공용노동청미당에 누워 《행정지침》철회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통성투쟁을 벌였다.

보수세당의 반인민적책임을 짓부시고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생취하기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그 무엇보다도 고무막을 수 없다. 한겨레의 엄격한 추위속에서도 활화산처럼 뿜어져 나오는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열기는 재빨리 화력이 되어 로동개혁정책에 미쳐달려드는 보수당국을 당황장조해 하고있다.

본사기자 라영국

도화선에 불달린 민심의 폭탄

최근 남조선의 언론들에 집권자에 대한 민심의 반감을 전하는 자료들이 많이 실리고있다. 그중에는 남조선집권자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

얼마전 남조선언론들이 전한 의하면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남조선집권자의 지지율이 한주일동안에 크게 떨어졌으며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정파의 《국정운영》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인식을 표시하였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남조선의 한 여론은 한 집권자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민심지진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전하였다.

인민들로부터 증오와 버림을 받는것은 민심을 동진 반역정권에게 있어서 필연적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유신》독재를 발붙게 하는 살인책정의 팽풍이 산산하게 울리고있다. 파쇼탄압이 민중들의 통치수단으로 되고 독재의 칼날이 번뜩이는 현 남조선사회는 《정권》에 조급이라고 반항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판하고 가혹한 처형의 대상이 되었던 과거 《유신》독재시기를 발붙게 한 정파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이 《총독부칙적》의 칼에 맞아 쓰러지고 합법적인 정당, 소조, 언론들이 독재권력유지에 장애로 된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강제로 해체되고있다. 보수세당이 벌리는 전대미문의 력사무례사토도로 사회는 더럽혀지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은 우리 나라와 헬남사이 외교관계가 수립된지 66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친선과 단결의 뉴데를 강화해서 두 나라 인민의 마음을 속여 뜻깊게 세겨져 있다.

지난 기간 헬남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적진보를 발전에 이룩하기 위하여 장구하고도 보람찬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헬남인민은 외세의 식민지 지배에 종지부를 찍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1945년 9월 헬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것은 헬남공산당의 올바른 령도와 헬남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의 자랑한 결실이었다.

그러나 헬남인민의 정의로운 위업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무력침공은 계속되었다. 1964년 8월 8일이 가작한 마르코프사건을 계기로 헬남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헬남인민은 외세의 식민지 지배에 종지부를 찍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1945년 9월 헬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것은 헬남공산당의 올바른 령도와 헬남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의 자랑한 결실이었다.

본사기자 김환미

월간국제 정세개관

새해의 첫날이 끝나고있다. 정월은 세계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한해의 운명대 목표를 내세우는 희망찬 날이다. 올해에 도 세계 여러 나라 대령명들이 신년선설에서 지나간 한해를 돌아볼때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인류는 새해를 맞으며 올해에는 세계에 평화와 안전이 깃들기를 념원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지배와 억압을 추구하면서 인류의 자주적지향에 역행하고있다.

미국은 《평화의 사도》로 자처하며 넉 초머리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미치고 관심이라든가 언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이땅에 세계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주범으로서 미국의 침략적정책은 어찌있어 드러났다.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정을 그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군 무력증강에 커다란 우려를 품고있는 로씨야와 중국의 반대에 대해 남조선에 대한 《사드》배기기도 로공화하였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책정은 대국들에 대한 전략적우세를 차지하며 나라를 압박해버리는 더욱더는 기도로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나파라에 미국은 이처럼 적대적정책을

역사의 반동들의 침략적본성은 변할수 없다

유엔주제 일본대사라는 미 고있었다. 유엔주제 일본대사라는 미비상일리사국임기간 남북조선문제를 최후요안건으로 취급하였다고 떠벌 뉴데를 강화해서 두 나라 인민의 마음을 속여 뜻깊게 세겨져 있다.

지난 기간 헬남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적진보를 발전에 이룩하기 위하여 장구하고도 보람찬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헬남인민은 외세의 식민지 지배에 종지부를 찍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1945년 9월 헬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것은 헬남공산당의 올바른 령도와 헬남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의 자랑한 결실이었다.

그러나 헬남인민의 정의로운 위업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무력침공은 계속되었다. 1964년 8월 8일이 가작한 마르코프사건을 계기로 헬남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헬남인민은 외세의 식민지 지배에 종지부를 찍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1945년 9월 헬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것은 헬남공산당의 올바른 령도와 헬남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의 자랑한 결실이었다.

본사기자 김환미

세계적범위로 확대되고있는 지카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최근 지카바이러스가 세계적범위로 급속히 전파되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에서 사하는 원숭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지카바이러스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어 감염되면 발진과 미열, 결막염, 머리카락의 증상을 이 2-3일 혹은 1주일동안 지속되게 된다. 특히 임신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수중에 결된 아이를 낳을 확률이 매우 높다 고 한다. 브라질에서만도 올해까지 약 4000명의 갓난애들이 소수중에 결된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지금 비루스는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하여 아메리카의 20여개 나라와 유럽나라들에서 8개 주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환자들이 발생하였다. 유럽

일본의 비법적인 고래잡이 비난

미국과 뉴질랜드의 과학자들이 이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의 부당한 고래잡이계획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그 구은 《과학연구》의 명목으로 고래잡이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은 아무런 과학적근거가 없다고 까뻐냈다. 그러면서 성명은 일본이 고래잡이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